

인간은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Erikson, 1998). 특히 이성관계는 여러 다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초기 성인기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Furman & Shaffer, 2003). 비록 이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비교했을 때 계약적인 책임을 덜 가지고, 언제든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맺는 이성관계는 부부관계에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들을 가진다. 성인기에 들 어선 청년들은 이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 역할,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Erikson, 1998). 이성교제 기간의 건강한 관계는 결혼 후의 만족도를 예견해주며, 이성교제 기간 중의 갈등수준이 결혼 후 적응수준의 연계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다(Kelly, Huston, Cate, 1985; Markman, 1981).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이성관계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역할을 해주지만,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감에 손상을 줄 만큼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Karney & Bradbury, 1995; Weiss & Heyman, 1997). 이러한 현상은 이성친구가 초기 성인기에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대상이기도하다는 보고와도 일맥상통한다(Wilson-Shockley, 1995). 실제로,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데이트 폭력이나 공격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성인이 25%가 넘으며,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울, 정서불안, 자살시도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다(Brent et al., 1993; Joyner & Udry, 2000; Wolfe & Feiring, 2000). 이와 같이 이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나 적응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한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주요 촉발요인이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란 목표, 기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상호적 대립상태로, 서로 다른 욕구, 성장배경, 신념, 기대 등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 충돌하게 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Brehm, Miller, Perlman, & Campbell, 2002; Collins, Laursen, & Mortenson, 1997).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관계 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문제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며 갈등을 잘 다루고 해결하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즉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처를 할 경우 전반적인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Bradbury & Fincham, 1990; Fincham & Beach, 1999). 다시 말해, 갈등이 친밀감을 더 촉진시킬지 고통을 가중시킬지의 여부는 사람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석하고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을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김경희,

2008), 애착(김광은, 2005; 김나리, 2002), 애착과 자의식(김나영, 2003), 사랑 성향(김예나, 2007), 조망수용 및 관계 귀인(김지현, 2006), 자존감(박영화, 고재홍, 2005), 자아상대(박정희, 1997), 성행동과 성태도의 일치도 여부(이경은, 2007), 의사소통 유형(허선이, 2005)등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갈등대처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갈등을 해석하고 대처방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은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행하게 하는 요인이다(Collins & Read, 1996; Karney & Bradbury, 1995). 특히 인지적 요인 가운데에서도 개인이 이성 관계나 이성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관계에 대한 신념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시킨 개인 고유의 인지 도식으로 관계에 대해 가지는 특정 태도나 가정, 기준, 기대를 포함하며 비교적 안정적이다(Stackert & Bursik, 2003).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REBT)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의 주요 원인이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iGiuseppe & Zee, 1986; Ellis, 1986). 여기서 ‘비합리적인 신념’은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건전한 인간 행동을 방해하는 사고나 신념”을 뜻한다(Ellis, 1962).

Eidelson과 Epstein(1982)은 관계신념 질문지(Relationship Belief Inventory) 개발을 통해 친밀

한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조사하여 총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의견 불일치는 곧 파멸이라는 신념이다(disagreement is destructive).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는 가치, 태도, 목표 등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믿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모든 문제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던지 이별을 예견하는 신호로 생각할 수가 있다. Satir(1967)는 이러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상대방을 강요하는 식의 대화를 하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의견 불일치가 생겼을 경우 부적응적으로 갈등에 대처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독심술이 가능하다는 신념이다(mind reading is expected). 즉, 진정으로 서로를 알고 돌보는 관계에 있는 연인들은 명백한 의사소통 없이도 상대방의 욕구와 선호를 알아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친밀한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에 있다면 좀 더 이해받는 느낌을 전달해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적합해 보이는 신념이지만, 실상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수록 실망, 오해, 갈등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Gottman, Nortarius, Gonso, & Markman, 1976). 실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독심

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매우 불만스럽게 느낀다. 또한 상대의 마음을 자신이 읽어냈다고 오해함으로써 상대의 욕구나 입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Eidelson & Epstein, 1982).

셋째,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고 그들 관계의 질 역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이다(partners can not change). 이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극단적인 가정을 나타낸다(Hurvitz, 1970). 어떤 사람이 심각한 정신 병리를 가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신념은 일반적인 인간관계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비현실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관계의 만족도나 몰입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머물러 있는 경향과 연관성이 있다(Doherty, 1981).

넷째, 서로에게 성적으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sexual perfectionism). 즉,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제나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은 성적인 흥분을 느끼거나 행위를 함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Kaplan, 1974; Walen, 1980). 이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가질 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내가 그/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그 순간에 몰입하기 보다는 즐거움과 흥분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게 되어 정서적 거리가 생겨버릴 수 있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01).

다섯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 신념이다(the sexes are different).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다르다고 믿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갈등의 원인을 서로 좁힐 수 없는 격차로 이해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합리화 시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욕구나 성격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무기력한 반응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Doherty, 1981).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를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마다 실망과 좌절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거나 왜곡된 문제로서 해석하고 이를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Epstein, Finnegan & Bythell, 1979). 이와 같은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을 낳게 되고 이는 계속되는 갈등의 순환을 야기한다(Ellis, Sichel, Yeager, DiMattia, & DiGuiseppe, 1989).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악화시키기도 하며 부적응적인 정서와 행동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남게 되는 악순환 과정이 되풀이 된다.

실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빈도나 대처방식에 차이가 나며,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강유진, 2005; 김진숙, 2007; 박정희, 1997; 연규진, 2006; 하상희, 정혜정, 2000; Addis & Bernard, 2002; Eidelson & Epstein, 1982; Eisenberg & Zingle, 1975; Haferkamp, 1994; Hamamci, 2005; Möller & de Beer, 1998; Moller & Van der Merwe, 1997; Stackert & Bursik, 2003). 역기능적인 관계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빈도로 갈등을 경험하며(Hamamci, 2005), 반대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개인일수록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Eisenberg & Zingle, 1975). 특히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파국적인 결과를 낳는다.’, ‘상대방은 절대 변할 리 없다’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경우 결혼생활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다(Haferkamp, 1994).

국내의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부적응적이었다. 특히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 경우 갈등에 직접 대처하기 보다는 회피를 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박정희, 1997). 뿐만 아니라,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은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떨어뜨리며, 아내와 남편이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간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수연, 1993; 하상희, 정혜정, 2000).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미혼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비록 비합리적 신념이 이성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tackert & Bursik, 2003)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의 전반적 질에 끼치고 있는 영향만을 검증하고 있을 뿐이며,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과 같은 변인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미혼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idelson과 Epstein(1982)이 제안한 관계에 대한 5가지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 관계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관계에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불능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해보았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산에 소재하는 P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총 250명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3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 응답자 233명 가운데 10문항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응답을 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29명의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20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00명(49.0%), 여자 104명(51.0%)이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남자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4.5세(SD=3.38), 여자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7세(SD=2.37)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와 관련된 특성을 보면 교제 기간은 1년 미만인 47.6%, 1년 이상이 52.4%를, 교제경험 횟수는 4회 미만이 57.8%, 4회 이상이 4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측정 도구

관계 신념 척도

본 연구에서는 Eidelson과 Epstein(1982)이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RBI)를 사용하였다. 연구진(2006)의 연구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 관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의 5가지 하위 척도명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는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disagreement is destructive, 8), 독심술(mindreading is expected, 8), 파트너의 변화 불능(partners can not change, 8), 성적 완벽주의(sexual perfectionism, 8), 남녀 차이에 대한 신념(the sexes are different, 8)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에 해당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비합리적 신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6이다.

갈등대처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지현(2006)이 재구성한 갈등대처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갈등해결양식척도(최규련, 1994)와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갈등협상전략척도(박지숙, 2001), 그리고 김나리(2002)가 이성교제에 맞게 번안한 갈등해결전략척도(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갈등대처행동척도는 이성교제 중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이성적 대처(6), 긍정적 감정표현(6), 외부도움 요청(6), 회피(6), 공격적 감정행동 표출(6)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적 대처는 갈등 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감정 표현은 갈등 시 애정 표현과 같이 긍정적이면서 정서에 호소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뜻한다. 외부도움 요청은 주변인물이나 권위 있는 인물 등에게 조언 및 도움을 구하는 대처방식을 나타낸다. 다음 회피는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회피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적 감정·행동 표출은 갈등 시 화나 욕설을 퍼붓는 것과 같은 공격적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는 대처방식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에 해당하는 갈등대처방식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29이다. 각 하위 유형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이성적 대처 .707, 긍정적 감정표현 .777, 외부 도움 요청 .755, 회피 .713, 공격적 감정·행동 표출 .853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을 이경성, 한덕웅(2005)이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3이다.

결 과

비합리적 신념, 갈등대처방식, 관계만족도 간 상관관계분석

이성관계를 하고 있는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 관계만족도의 전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대처방식은 적응적 대처방식과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은 적응적 대처방식($r=-.22, p<.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부적응적 대처방식($r=.48,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관계만족도($r=-.46,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적응적 대처방식은 부적응적 대처방식($r=-.25,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관계만족도($r=.2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적응적 대처방식은 관계만족도($r=-.40,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합리적 신념,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각 하위

표 1. 비합리적 신념, 갈등대처방식, 관계만족도 간 상관 ($N=204$)

	비합리적 신념	적응적 대처방식 ^a	부적응적 대처방식 ^b
적응적대처방식	-.22**		
부적응적대처방식	.48**	-.25**	
관계만족도	-.46**	.22**	-.40**

** $p<.01$

a. 적응적 대처방식: 이성적대처, 긍정적감정표현, 외부도움요청 포함

b. 부적응적 대처방식: 회피, 공격적 감정·행동표출 포함

표 2.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 하위요인별 상관

	갈등 대처 방식				
	적응적 대처방식			부적응적대처방식	
	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외부도움 요청	회피	공격적감정· 행동표출
비합리적신념 (총점)	-.30**	-.26**	.03	.27**	.46**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34**	-.24**	-.02	.28**	.51**
독심술	-.12	-.11	.07	.02	.31**
파트너의 변화불능	-.42**	-.32**	.04	.23**	.31**
성적 완벽주의	.05	.03	.05	.20**	.09
남녀 차이	-.08	-.14	-.03	.06	.17*

* $p < .05$, ** $p < .01$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과는 부적상관을, 부적응적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는 이성적 대처($r = -.34, p < .01$), 긍정적 감정표현($r = -.24, p < .01$)과 같은 적응적 대처방식과는 부적상관을, 회피($r = .28, p < .01$), 공격적 감정·행동표출($r = .51, p < .01$)과 같은 부적응적 대처방식과는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독심술은 전체 대처방식 가운데 공격적 감정·행동표출($r = .31, p < .01$)에서만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파트너의 변화불능은 이성적 대처($r = -.42, p < .01$), 긍정적 감정표현($r = -.32, p <$

.01)과 정적상관을, 회피($r = .23, p < .01$), 공격적 감정·행동표출($r = .31, p < .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성적 완벽주의는 회피($r = .20, p < .01$) 행동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남녀차이에 대한 신념은 공격적 감정행동표출($r = .17, p < .05$)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모든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에서 갈등대처방식 중 외부도움요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이성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 만

표 3. 관계 만족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R^2	ΔR^2	F변화량
관계 만족도	파트너의 변화 불능	-.46	.22	-	55.55***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31	.30	.08	23.43***

*** $p < .001$

측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비합리적 신념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비합리적 신념으로는 파트너의 변화불능과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가 차례로 나타났다. 파트너의 변화불능($\beta = -.46, p < .001$)이 관계만족도를 22%로 가장 많이 설명해주었다. 이어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beta = -.31, p < .001$)가 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이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 관계 만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앞에서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관계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언해주는 비합리적 신념인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와 파트너의 변화 불능에 대한 신념만을 측정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갈등대처방식의 경우 하위요인을 크게 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외부도움요청)과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회피, 공격적 감정·행동표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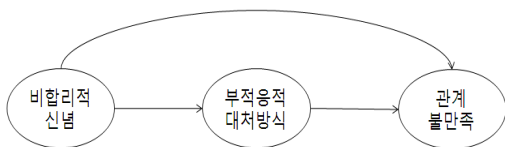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부적응적 대처방식 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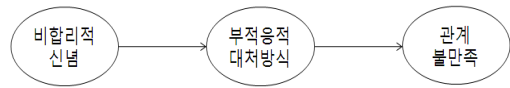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 부적응적 대처방식 완전매개모형

하지만 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효과 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 연구모형에서 생략하였다 (부분매개모형 $\chi^2 = 7.000(df=8, N=204)$, TLI = .624, CFI = .800, RMSEA = .172; 완전매개모형 $\chi^2 = 6.441(df=9, N=204)$, TLI = .659, CFI = .796, RMSEA = .16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은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와 파트너의 변화불능 신념이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관계불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부분매개 모형이다. 연구모형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좀 더 우수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888(df=4, N=204)$, TLI = .920, CFI = .968, RMSEA = .085로 나타났고,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0.307(df=4, N=204)$, TLI = .943, CFI = .971, RMSEA = .072로 RMSEA가 괜찮은 적합도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¹⁾(홍세희, 2000) 두 모형의 χ^2 의 차이는 0.419(df=1)로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1)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9.888	4	.042	.920	.968	.085
대안모형 (완전매개모형)	10.307	5	.067	.943	.971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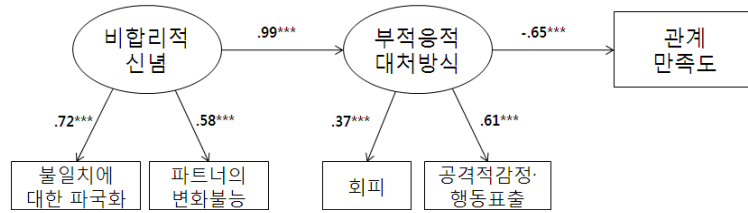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선택된 대안모형의 표준화된 추정치

표 5. 매개효과 모형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비합리적 신념 → 부적응적대처방식	.36	.99	.08	4.47***
부적응적대처방식 → 관계만족도	-3.20	-.65	.73	-4.39***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고 모형의 간명성이 더 간명한 대안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대안모형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해보기 위해 Sobel(1982) 검증 계산식을 활용하였다.²⁾ Z검증

$$2) Z_{ab} = \frac{a \times b}{\sqrt{b^2 \times s_a^2 + a^2 \times s_b^2 + s_a^2 \times s_b^2}}$$

Sobel 검증 중 Aroian 검증함. 여기서 a: 최초의 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계수, b: 매개변수에서 최종 변수로 가는 경로계수, s_a : 최초변수의 표준오차, s_b : 최후 변수의 표준오차, 검증결과

결과 $Z=-3.13244$ 로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즉,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와 파트너의 변화 불능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은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러한 신념이 부적응적인 갈등행동을 촉발시키고 그 결과로 관계 불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Z > 1.96$ 혹은 $Z < -1.96$ 일 때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함

논 의

본 연구는 이성교제중인 미혼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 관계 만족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Eidelson과 Epstein(1982)이 제안한 관계에 대한 5가지 비합리적 신념 가운데 관계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것인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관계에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불능과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 관계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은 적응적 대처방식(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외부도움요청), 관계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부적응적 대처방식(회피, 공격적 감정·행동표출)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적응적 대처방식은 관계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 대처방식의 경우 관계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은 경우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회피나 강압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는 강유진(2005), 박정희(1996), Haferkamp(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갈등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선행연구결과(김지현, 2006; 이경은, 2007; 최규련, 1995; Kurdek, 1995)와 일관되게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경우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적응

적인 대처방식이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영역별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 불능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성적인 갈등 대처가 어려워지고,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불가능, 성적완벽주의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질 경우 갈등에 회피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대처방식인 공격적 감정행동표출은 성적완벽주의 신념을 제외한 하위영역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관계 만족도를 예언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tepwise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은 파트너의 변화불능과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로 나타났다. 즉, 파트너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신념을 가질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상황이나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에 대한 만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사고까지 더해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을 강요하거나 그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만 치중했거나, 갈등대처방식과 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만 치중할 경향이 있는데,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역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세 가지 변인을 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성 관계만족도를 예언해주는 비합리적 신념인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불능을 위주로 하여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분석 결과, 비합리적 신념이 회피나 공격적 감정·행동 표출과 같은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거쳐 관계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나 파트너의 변화불능과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은 직접적으로 관계만족도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가짐으로써 갈등을 왜곡시키고, 악화시키는 부적응적 대처방식을 하게 되고 이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관계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이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특히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 파트너의 변화불능은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촉발하게 하는 신념으로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관계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

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부적응적인 갈등대처방식을 거쳐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해 본 것은 커플의 갈등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 관계를 건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만약 부적응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 경우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신념을 검토하고 이것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게끔 개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생각으로 옮겨봄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애시절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선행연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그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었으나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나이와 같은 변인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성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이성 관계 경험의 횟수나 그에 대한 신념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갈등대처방식, 관계만족이라는 심리학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의 남녀별 t검증 결과 관계만족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합리적 신념의 일부 하위영역(불일치에 대한 과묵화, 독심술, 파트너의 변화불능, 성적 완벽주의)과 갈등 대처 방식의 일부 하위영역(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공격적 감정행동표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성별의 차이에 따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미혼남녀 각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 개인이 이성 관계에서 가지는 경험을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커플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부적응적 갈등대처행동과 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개인 교유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현재 교재하고 있는 파트너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진숙과 권석만(200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경직되어 있느냐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신념 차이가 관계불만족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을 하나의 단위로서 여기고 커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갈등대처유형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RBI)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나라 부부들에 맞게 부부신념요인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김진숙, 권석만, 2009), 결혼 이전의 성인들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에 방해가 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신념이나 기대는 부부관계에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성관계를 하고 있는 성인들이나 커플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05).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3). 대학생 이성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나 (2007).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사랑 성향과 이성교제시 갈등 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숙 (2007).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검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권석만 (2009).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지, 19(1), 65-83
- 박정희 (1997). 자아상태와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아내들의 부부갈등해결방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숙 (2001). 청소년기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협상전력과 자아 중심성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연 (1993). 부부관계와 의사소통 및 비합리적 사고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규진 (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679-705.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경은 (2007). 대학생의 성행동-태도 일치도 및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옥선화, 이경희 (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 최규련 (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하상희, 정혜정 (2000). 신혼기 부부의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 가정학회지, 3(2), 27-38.
- 허선이 (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dis J., & Bernard M. E. (2002). Marital Adjustment and Irrational belief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0, 3-13
- Baucom, D. H., Epstein, N., Sayers, S. L., & Sher, T. G. (1989). The role of cognitions in marital relationships: Definitional,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31.
- Bradbury, T. N., & Fincham, F. D.(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ehm, S. S., Miller, R. S., Perlman, D., &

- Campbell, S. M. (2002). *Intimate relationships*. Boston: McGraw-Hill.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Baugher, M., Roth, C., Balach, L. et al. (1993). Stressful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adolescent suicide: A case 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79-187
- Collins, N., & Read, S. J.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10-832.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DiGiuseppe, R. D., & Zee, C. (1986). A rational-emotive theory of marital dysfunction and marital therapy. *Journal of Rational Emotive Therapy*, 4, 22-27.
- Doherty, W. J. (1981). Cognitive processes in intimate conflict: II. Efficacy and learned helplessne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35-44.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Eisenberg, J. M., & Zingle, H. W. (1975). Marital adjustment and irrational idea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16-31.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and Citadel Books.
- Ellis, A. (1986). Rational emotive therapy applied to relationships therapy. *Journal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4, 14-21
- Ellis, A., Sichel, J. L., Yeager, R. J., DiMattia, D. J., & DiGiuseppe, R. (1989). *Rational-emotive couples therapy*. New York: Pergamon.
- Epstein, N., Finnegan D., & Bythell D. (1979). Irrational beliefs and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3), 608-610
- Erikson, Erik H. (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W. Norton
- Fincham, F. D., & Beach, S. R. (1999). Marital conflict: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47-77
- Furman, W., & Shaffer, L. (2003). The rol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P. Florsheim (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pp.3-2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ttman, J., Notarius, C., Gonso, J., & Markman, H. (1976). *A couple's guide to communication*. Champaign, III: Research Press
- Haferkamp, C. J. (1994) Dysfunctional Beliefs, Self-Monitoring, and Marital Conflict. *Current Psychology*, 13(3), 248-262.
- Hamamci, Z. (2005).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i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23(3), 245-261.
- Hurvitz, N. (1970). Interaction hypotheses in marriage counseling. *The Family Coordinator*, 19, 64-75.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 Norton New York.
- Joyner, K. & Udry, J. R. (2000). You don't bring me anything but down: Adolescent rom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369-391.
- Kaplan, H. S. (1974). *The new sex therapy: Active treatment of sexual dysfunction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178
- Kurdek, L. K.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Markman, H. J. (1981). The prediction of marital success: A five-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CA: Joseey-Bass.
- Möller, A. T., & De Beer, Z. C. (1998). Irrational beliefs and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 Reports*, 82, 155-160.
- Möller, A. T., Van der Merwe, J. D. (1997). Irrational beliefs,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4), 269-279
-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tackert, R. A., & Bursik, K., (2003). Why am I unsatisfied? Adult attachment style, gendered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419-1429
- Walen, S. R. (1980). Cognitive factors in sexual behavior.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6, 87-101.
- Weiss, R. L. & Heyman, R. E. (1997). A clinical research overview of couples interactions. In W. K. Halford & H. J. Markman(Eds.), *Clinical handbook of marriage and couples intervention*, (pp.13-41). New York: Wiley.
- Wilson-Shockley, S. (1995).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The contribution of negative a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ampaign, IL.
- Wolfe, D. A. & Feiring, C. (2000). Dating violence through the lens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Child Maltreatment*, 5, 360-363.

1 차원고접수 : 2011. 6. 28.

수정원고접수 : 2011. 8. 22.

최종게재결정 : 2011. 9. 6.

Irrational Beliefs, Conflict Tactic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i-Yeon Lee

Su-Gyu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among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negative conflict tactics and dissatisfaction i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RBI), Conflict coping behavior sca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were completed by a sample consisting of 204 adults(100 men, 104 women) in ongoing romantic relationships. As hypothesized before,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conflict tactics such as withdrawal and aggressive acting-out behavior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beliefs related to disagreement is destructive and partners can not change were most strongly related to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Path analyses indicated that irrational beliefs have indirect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hich mediated by negative conflict tactic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couple therapy are discussed.

Key words :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conflict tactics, relationship conflict,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on effects*